

CONTENTS



차례

공주의 어제와 오늘 2
 웅진칼럼 _ 3
 무심한 금강다리 _ 이문하
 2010년 '대백제전' 개최 _ 7
 백제문화제 세계화 첫걸음 디터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⑤ _ 10
 한국 B.B.S 대전·충남연맹 공주지부
 특집(I) _ 12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⑧ / 백원철
 특집(II) _ 16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⑦ / 장길수
 우리 고장의 옛 자취를 찾아서 _ 20
 - 공주의 학교 정담(情談)④ / 이일주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_ 27
 - 사곡면 호계리
 공주의 인물 _ 32
 - 청백리 노극정
 내고장 소식 _ 34
 - 시정소식
 - 내고장 소식
 - 미담
 예술의 향기 _ 45
 문화원 소식 _ 53

8



10



41



49



54



〔公州의 어제와 오늘〕

백제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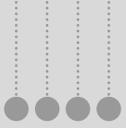
제12회 백제문화제
개막식 행사 후 가장행렬대가
공주시내를 지나가고 있다.



제24회 백제문화제

지금의 백제문화제





무심한 금강다리



이 문 하 _

- _ 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 _ 강경상고, 공주사대부고 교사
- _ 공주고등학교 교감
- _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_ 공주여자고등학교 교장
- _ 충청남도공주교육청 교육장
- _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원장

공주를 아는 사람들 누구나 뇌세포의 기억인자 속 한 귀퉁이에 금강다리의 전경을 저장하고 있으리라는 데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다리는 단연 공주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금강교만 오롯이 홀로 서있었으나, 요즘은 위아래로 더 큰 4차선 다리가 건설되어 다소 위축된 듯하다. 그럼에도 고풍스런 아치형 철교는 옛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정겹다. 밤이 되면 형형 색깔의 꼬마전구들로 장식해 놓아서 그 깜박거리는 불빛들이 산성공원의 성벽 조명등과 더불어 강물에 얼비치니 마치 오색 빛으로 잔치를 차린 듯이 아름답다.

나는 강북의 월송리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강남소재의 학교로 통학했다. 직장생활도 강북 신관동에 살면서 주로 강남의 여러 학교에서 근무를 하였다. 대학교와 군대생활 등 수년간을 제외하고는 공주를 떠나서 산 기간이 길지 않다. 그러다보니 금강다리를 오고 간 이용횟수로 따진다면 아마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 저 무심한 금강다리도 나를 나름대로 인정해줄 거라는 가당치도 않은 생각도 해본다.

6.25전란 때 미군 B29 폭격기가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금강다리를 폭격하여 다리의 3분의 2쯤을 끊어놓았다. 폭격 당시에 우리 동네에 사는 내 친구의 아버지가 호태산에 올라가 태극기를 꺼내어 만세를 부르다가 신속에 숨어있는 인민군에게 현장에서 총살을 당했다.

내가 중동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아치형 철교가 폭격으로 끊긴 채 강바닥에 비스듬히 주저앉아 있었고, 전막 쪽 모래시장에서 강 건너 산성의 끝자락 암벽 아래 부근까지 배턱으로 삼은 나룻배를 타고 통학을 하였다. 다리



의 아래쪽에는 6.25전쟁 시 탱크 한 대가 강바닥으로 건너다가 모래 속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고 강물에 처박혀 있었다.

여름날 우리들은 금강의 그 맑은 물 속에서 벌거벗고 멍을 감았다. 하룻길에는 탱크와, 교각 밑에서, 옛 배다리 부근, 또는 산성의 밑에 있는 바위 부근에서 헤엄을 치고 놀았다. 햇살은 물 위에서 반짝거리는 동시에, 수면 속에서는 어른거리는 물무늬를 만들면서, 심지어 물속의 모래 알갱이들까지도 빛나게 하였다. 가끔 물고기들이 강물 위로 치솟아 오르면서 은빛 비늘로 순간 햇별을 반짝 반사시키곤 하였다. 강물은 그토록 맑았다.

그 때는 변변한 수영복도 없는 시절이다. 어른이나 아이나 벌거벗고 멍을 감는 것이 아주 자연스런 풍경이었다. 어떤 어른들은 시커먼 거옷과 물건을 자랑이나 하듯이 털렁거리며 폼을 잡고 다녔고, 어떤 꼬맹이들은 볼품없이 작은 고무도 부끄러워 손으로 가리고 종종걸음으로 다녔다. 조금 떨어진 강 아래쪽에는 아낙들 여럿이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방망이를 두드리며 빨래를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정경들이 마치 김홍도의 옛 풍속화처럼 회상된다.

금강다리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통학하면서 사공이 노 젓는 느려터진 나룻배를 타는 무료함을 복원공사구경으로 메꾸었다. 공사는 그야말로 서커스를 보듯 스틸 만점이었다. 아치형 무지개다리 꼭대기에서는 인부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일하였다. 다리 아래 강물 위에는 배를 띄우고 그 위에 쇠를 달구는 시설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아치형 철교에 쫘쫘히 박혀 있는 주먹만한 쇠뿔을 배위에서 쇠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시뻘겑게 달구어진 그 쇠뿔을 집게로 집어 까마득히 높은 무지개다리 위로 휘익 던져주면, 철교 위에 매달려 있는 인부가 작은 깔때기 모형의 함석 통으로 이를 척 받아서 철 구조물에 김을 내며 박아 넣었다. 아래에서 던져주는 사람이나 이를 절묘하게 받는 사람들의 기술은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웠다. 정말로 아찔하고 기가 막힌 묘기를 우리들은 공짜로 보았다.

여름 장마철에는 강물이 누렇게 불어나며 범람하였는데, 이런 때에도 다리공사는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사인부 한 사람이 아치형 철교 꼭대기에서 실족하여 떨어진 사고가 났고, 인기 만점의 그 인부는



범람한 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렇게 재주가 좋은 사람이 어찌하여 떨어졌으며, 왜 해엄을 쳐서 살아나오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죽음을 몹시 서운해 하였던 일이 기억난다. 다리가 복원되었다.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칠해졌으며, 이제 완성된 줄 알았더니 빨간색 위에 또다시 은색으로 칠해졌다. 그리고 드디어 완공되었다.

공주에는 X와 Y라는 유명한 두 사람의 건달이 있었다. 어느 날 만원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금강다리의 아치형 철 구조물 중간에서 버스가 섰다. 버스가 정차할 곳이 아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차창 앞을 보니 Y라는 건달이 사르마다(광목으로 만든 당시의 팬티)만 입고 버스 앞을 가로막고 서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Y는 다리 난간을 밟고 버스 지붕위로 올라갔다. 나는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승객들을 따라서 내렸다. 그는 버스 지붕 위에서 다리의 철 구조물의 가로 받침대를 잡고 철봉하듯 위로 가볍게 올라가 무지개다리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강물은 그 날도 홍수로 범람하였다. 여러 승객들이 탄성을 지르는 가운데 그는 강물로 다이빙하였고 한참 후에 다시 누런 물 위로 떠올라 유유히 해엄쳐 나갔다. 참으로 담대하고 강한 모습이다. 그는 공주의 건달 대표답게 여러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깡다구 한번 근사하게 보여주려고 그런 식으로 폼을 잡았으리라.

옛날의 겨울은 지금의 겨울보다 훨씬 추웠다. 다리의 끝에서 끝까지 강바람과 눈보라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건너갈 때는 길이 513m의 금강다리는 더욱 길고 차게 느껴진다. 봄이 되면 화창한 봄날의 아지랑이가 은모래 위에도 피어오른다. 강물은 투명하고 모래사장은 포근했다. 다리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모래밭에는 누군가가 그려놓은 '사랑한다 영자야' 등등이 하트에 화살이 쏘힌 그림과 더불어 적혀 있기 일쑤였다. 다리 끝 전막에는 파출소가 있었고 조금 더 가서 오른쪽 골목에 목조 이층집에는 형님뻘 되는 일가 사람이 운영하는 '은모래다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다방 주인도 세상을 떠났고 추억 속의 '은모래다방'도 오래 전에 철거되었듯이 강변에서 반짝이던 그 은모래 백사장도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다.

금강 상류의 대청댐으로 인해 공주는 이제 큰 홍수에도 물난리를 겪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금강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길은 너무나 빈약하여 가뭄이 들면 강바닥에 옛날 배다리를 엮어놓았던 앙상한 나무말뚝이 드



러나며 강물은 썩은 냇물처럼 초라하다. 이에 공주시는 라버댐 또는 들보를 놓아 강의 수량을 늘리고 금강의 풍치를 좋게 하는 문제로 환경단체와 왈가불가하는 모양인데 아직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아 보인다.

금강교는 1933년에 준공되었다. 1932년 충청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졌는데, 공주는 교통이 불편해 행정 중심지로 적당치 않으며 도청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민중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자 공주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일제는 이에 대한 무마책으로 금강교 건설, 농림학교(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사범학교(공주교육대학 전신) 등을 설립해 주었다.

따지고 보면 금강다리는 80여 년 전 충청도청과 바꾼 셈이고, 2012년이면 또다시 금강다리는 그놈의 충청도청이 자신을 지나쳐서 홍성·예산으로 새집을 짓고 이사하게 되는 꼴을 멀거니 봐야만 될 처지이다.

금강교는 2006년 3월 등록문화재 제23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금강교는 일제 때 경성과 목포를 이어주던 1등도로의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며, 이 다리를 건넌 수많은 공주 사람들에게, 해방과 6.25사변, 4.19, 5.16, 새마을 운동,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민주화 시대의 오늘과 숲한 앞날의 불확실한 미래까지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라는 생각이 든다. 공주를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보면 옛 생각이 절로 나는 추억의 다리이다. 가령 추석 명절 때 고향을 찾아와 좋은 사람 만나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나, 변해버린 옛 마을과 변해버린 인심에 실망한 사람도, 그저 그렇게 옛날처럼 변함없이 서있는 금강다리를 보게 되면 내심 고향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스스로를 위무할는지 모른다.

오랜 세월을 수많은 사연과 애환을 지닌 채 건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금강다리는 언제나 놓인 그대로 묵묵히 강물을 흘려보내 듯, 긴긴 세월을 언제나 묵묵히 흘려보내니 참으로 무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무심한 놈들이다. 무생물이니까 물론 무심이지만 변함없이 무심해 보이는 사물들은 오히려 변화무쌍한 온갖 것들보다 심리적으로 퍽 안도감을 준다.

그러므로 금강교여,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대로 늘 언제까지나 서있어 공주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의 덧없는 마음을 무심으로 다잡아 엮어줄 지어다. 무심하고도 정겨운 공주의 금강다리여!

찬란한 '700년 백제의 꿈' 이 영근다

백제문화제 세계화 첫걸음 디더

2010년 '大百濟展' 개최

공주·부여 통합개최, 세계적 축제로 키운다

제53회 백제문화제가 공주와 부여가 공동개최로 역사적인 막을 올린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통합축제로 막을 여는 백제문화제는 '700년 백제의 꿈'이란 주제로 2007년 10월11일부터 15일까지 총사업비 40억원(道 20억, 공주 10억, 부여 10억)을 투입한다.

2007년도 행사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대백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백제문화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최고의 명품축제로 발전시켜, 2010년 이후 찬란한 백제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가칭)大百濟展'을 개최할 계획이다.

백제문화제 세계화 추진방안으로는 韓·中·日 등 범 백제권 교류 강화를 통한 국가간의 우호증진과 중국 남조문화·백제문화·일본 아스카(飛鳥) 문화 간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상생을 통한 백제문화 세계화에 기여하며 삼국시대 왕도인 공주·부여 지역을 역사문화도시로 특성화하여 백제역사문화도시 기반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령왕 이야기', '백제향', '백제문화 환타지 퍼레이드', '퀴즈 쇼! 백제인의 도전', '백제역사 심포지엄', '백제문양 패션쇼', '공주 인절미 만들기', '백제역사 대행렬', '백제오천결사대 총혼제'를 비롯하여 외국 예술단 공연과 중요무형문화제 시연도 펼쳐진다.

또 △2007년은 백제 제탄생의 해, △2008년~2009년까지는 백제문화 세계화 확대, △2010년에는 백제문화의 세계화 완성을 위해 연차별로 Story Line이 형성될 수 있는 대주제를 개발키로 했으며,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대표축제를 보조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5월경에 공모해 4~5개



百濟

선정, 추후 평가를 통해 육성하고 재 발굴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개·폐막식 의전행사는 간소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 행사로 구성 예정임을 설명했다.

이번 백제문화제는 이어 백제 예술인의 거리, 가장행렬 결연, 참여자 인센티브, 대학생 축제참여, 자원봉사 '백제홍복단'을 결성하여 게릴라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과거 백제가 영향을 미쳤던 일본, 중국부터 시작해 2010년에는 전 세계 범위로의 확대를 목표로 세계화를 전개한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를 되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준원 공주시장과 김무한 부여군수는 "도와 협의하여 공주시와 부여군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뜻을 같이하며, 백제문화 '세계화 사업'과 '관광 자원화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최석원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3대 축제 중 유일하게 백제문화제 하나 남아 있다"며 "백제문화제의 의미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한민족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하나의 의지와 힘을 모으는 것으로 국내 3대 문화제의 위상을 뛰어넘어 아시아의 대표 문화제로 거듭나,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만들 것"이라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신용희 명예기자



백제역사 대행렬 참가자 모집

‘700년 대백제의 꿈’이라는 주제로 제53회 백제문화제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백제문화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사랑을 받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제역사 대행렬 참가를 희망하시는 시민 여러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07. 9
2. 선발인원 : 000명(선착순 접수)
3. 신청기준 : 공주시 백제문화제에 관심이 있는 만13세 이상의 시민
4. 참여내용 : 소품 지참 행렬 참가
 - 일시 : 2007. 10. 13(토) 16:00
 - 구간 : 공주고등학교 ⇄ 공산성(1.8km)
 - 행사진행관계상 10. 13(토) 14:00까지 참여, 현장에서 소품 배부
 - 소품은 행사 종료 후 필히 반납하셔야 합니다.
5. 선발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문제 메일 통보)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접 수 : 문화관광과, 관내 읍면동,
인터넷 접수(canivalok@hanmail.net)
 -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7. 문의 : 백제문화제 상황실
☎ 041-840-2759(Fax. 041-840-2161)

백제문화제에 직접 참여하므로써 백제의 후예로서 공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크게 가질 수 있다.



백제역사 대행렬 참여 신청서

성명			전화	주택	
연령	성별			휴대폰	
주소				E-mail	
백제복	백제복(20,000원 예정)		대중소		
백제등	백제등(25,000원 예정)				

백제복 및 백제등 구입은 자유입니다.



공주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를 찾아서 소개하고 널리 알리고자 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해병대공주전우회를 소개합니다.



시민들에게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해병대 공주전우회



노영수 회장

해병대전우회는 전역한 해병대출신이면 자율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법인 단체입니다. 따라서 단체도 전국 어디에나 있으며, 지역민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하여 회원 모두가 밤낮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공주전우회는 약 110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모임의 목적은 교통정리 및 방법순찰 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드리는 데 있으며, 노영수 회장, 안광호 사무국장, 서한석 기동대장이 중심이 되어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목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관내 학교 주변 및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각종 행사 및 명절, 관내 교통 혼잡지역에서 교통정리 봉사를 연 1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는 우성 삼거리, 산성동 시장 입구에서 추석과 설날에 3일을 봉사하고, 초과일이면 감사, 동학사, 신원사에서 활동하며, 특히 주차장이 부족한 신원사에서 중점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으로는 관내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금강 상수



방법야간순찰을 돌기에 앞서..



회원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도 보호구역을 비롯한 금강 유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 참석하는 학생 수가 1200명에 이르고 합니다.

금강 안에 있는 '밤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호 활동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선 연 2회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도 부족하고, 많은 학생을 수용하는 데 따른 안전 문제도 있어서 우선은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주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고, 금강과 상수도 지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교육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 활동으로는 관내 익사자 구조 활동과 인명 구조 활동을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 특히 휴가철에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부족하여 정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을 하자니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봉사인데, 어떤 행사를 돋보이게 하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달려가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안전함도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공주해병대전우회 회원들께 더욱 큰 박수를 보냅니다.

글 | 김춘원 명예기자



상수도 보호구역인 밤섬에서 학생들과 청결활동 준비중인 회원



관내 중고등학생들과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금강 상수원보호구역 청결활동을 마치고 ...



금강 밤섬에서 학생들과 함께 청결활동을 하고 있다.

공주(公州)에서 노닐며



백 원 철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명산(名山) 대천(大川)과 더불어 역사를 지닌 이곳 공주는 예로부터 한인 묵객(翰人墨客)들의 발걸음이 잦고 이에 따라 그들의 음영(吟詠)도 많거니와,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을 만한 인물은 단연 담헌(澹軒) 이하곤(李夏坤: 1677.숙종3 ~ 1724. 영조1) 공이다.

담헌은 진사시에 급제한 뒤로는 과거와 벼슬에 뜻을 접고, 고향인 진천에 내려가 학문과 서화에 힘썼으며, 전국을 두루 여행하였다. 당대의 문사인 이병연(李炳淵)을 비롯 화단의 거장인 정선(鄭敼)과 윤두서(尹斗緒) 등과도 교유한 문인이며 화가이기도 하였다.

공이 공주 지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수십 수에 달하는 다수의 시작품을 남기게 된 것은 형인 이순좌(李舜佐)가 공주 진영장(鎭營將)으로 부임하자 이곳을 찾아 여러 날을 주유(週遊)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다음 시에서 저간의 정황을 알 수 있다.

우리 형이 수령으로 공주에 부임하여
훌륭한 업적은 옛 어진 관리에 못지 않네
문서 장부 깨끗이 처리하니 관청이 한가롭고
밤에는 금강에 아름다운 배 띄우네
이름난 기녀들 10여명 말타고 등장하니
알록달록 치장한 옷자락 맑은 물에 비치네
맛있는 술 넉넉하게 선실 뒤편에 싣고
북이며 피리는 나뉘어 뱃머리에 벌여섰네
풍류 즐길은 윤 중군(장)이 뛰어나고
호걸찬 기상은 이 우후(영장)에 짝할 이 없다네
.....〈중략〉.....
취하여 말 타고 노래하며 돌아가니
성머리에 해숫자 까마귀 울며 나네

吾兄作宰來公州 美績不減龔黃儔
掃盡簿牒鈴閣閑 夜向錦江泛彩舟
名妓十隊騎馬出 紅粧絺服照清流
千斛美酒載後艙 數部鼓吹置船頭
醉後上馬蹋歌歸 城頭日出鴉

〈頭陀草 十一冊 錦江行〉



역사의 숨결이 서려 있고, 흥망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공주를 찾은 담헌 공에게 회고의 시가 어찌 없을까.

곰나루 터에 해는 누엿누엿 지는데
차가운 날씨 속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네
치열한 싸움터는 원래 어느 곳이더냐
흥망의 역사는 오늘에 이르렀도다
강산은 지난 자취 아직 남아 있는데
사당 건물 수풀 속에 외롭게 서있네
옛적의 전선과 장수를 생각해 보면
삼엄한 깃발 바다 덮으며 돌려 왔으리

日落熊津渡 天寒弔古心
戰伐元何地 興亡遂至今
江山餘往蹟 祠宇一叢林
尙想樓船將 旗旗蔽海陰

〈頭陀草 十一冊 熊津懷古〉

위 시는 옛적 당나라 군사들이 주둔했었다고 전해오는 곰나루터를 바라보며 회상에 젖어 쓴 글이다. 곧 나당(羅唐)연합군이 백제를 칠 때에 당나라의 장수 유인궤(劉仁軌)와 유인원(劉仁願) 등이 수많은 전선(戰船)을 끌고 와 주둔한 곳이 곧 곰나루(熊津)이다. 그러므로 공은 이 곳이 바로 백제가 최후로 망국의 비운을 맞은 곳임을 상기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공은 공주의 유적지와 명승지 곳곳을 돌아보며 시를 지었는바, 다음은 공산성을 두고 읊은 시이다.

금강의 긴 물줄기 맑게 흐르고
위로는 가파른 삼가퀴 의연하네
수풀은 멀리 백제 땅에 펼쳐졌고
산세는 완연하게 석두성처럼 둘러졌네
지난 날 일찍이 임금 수레 마문 곳이나
다른 날 어찌 북의 병사 걱정하리
삼남의 요충지요 천혜의 요새이니
견고한 성으로 길이길이 서울을 보호하리

錦江之水百丈清 上有崢嶸粉堞橫
樹色遙分百濟國 山形宛似石頭城
往時曾駐南巡賀 異日何憂北渡兵
要扼三南最天險 金湯萬世拱神京

〈頭陀草 十一冊 公山城〉

북서로 금강을 두르고 동남으로 험벽을 이룬 공산성은 금성탕지(金城湯池)의 견고한 성으로서 마치 중국의 석두성(중국 남경 서쪽에 있다. 육조시



대 이래로 중요시 여기는 성으로서 일찍이 제갈량이 호랑이가 걸터앉은 형국이라고 찬탄한 바 있으며 石首城이라고도 한다)처럼 튼튼한 요새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설령 지난 때 이괄의 난처럼 위급한 때가 오더라도 두려워 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어서 쌍수정에 오른 공은 재차 누를 길 없는 감회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갑자년 심한 난리에	亂離甲子甚	仁祖此登亭
인조왕이 이 정자에 올랐었지	神武君王有	功勳將帥銘
신령스런 위엄은 군왕에게 있고	五雲猶自駐	雙樹只長青
빛나는 공훈은 장수 이름 새겼네	今古情無極	江流不少停
오색 구름 오히려 스스로 머문 듯한데		〈頭陀草 十一冊 雙樹亭〉
두그루 나무 다만 크게 자라 청청하네		
지금도 옛 생각에 한없이 젖어 드는데		
강물은 흘러흘러 잠시도 멈추지 않네		

이 시는 직접 이괄의 난(갑자년.1624)을 언급하면서, 이 때 피난 온 인조왕이 이 정자에 오른 사실을 상기한 것이다. 역사도 부침을 겪고 인간세계는 더 유한하지만, 도리어 남아있는 자취와 자연은 오히려 장구한 세월을 감내하고 있음을 읊은 것이라고 보겠다.

공은 이어 공주 주변의 명승고적을 두루 돌아보며 이를 즐겨 시로 읊었으니, 예컨대 산사(山寺)들도 모두 그 대상이 되었다.

계룡산의 여러 절들 옛스러운데	鷄龍諸刹古	甲寺久知名
갑사는 더욱 그 이름 알려졌지	木秀霜餘色	鍾淸世外聲
쭙쭙 자란 나무들 서리 뒤에도 늙름하고	銅標深歲月	石佛儼生成
맑은 종소리는 인간세계가 아닌 듯 하네	十年徒夢想	今日始經行
구리 꽃대는 긴 세월을 견디어 섰고		〈頭陀草 十一冊 甲寺〉
돌부처는 근엄하게 자리 잡았네		
10여년이나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더니		
오늘에야 비로소 발걸음 단게 되었네		

위 시는 갑사에 대하여 읊은 것이다. 10년토록 다만 꿈속에서라도 찾고



싶었던 곳이었다고 한 데서 갑사를 향한 지은이의 염원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겠다.

다음은 마곡사를 찾아 읊은 것이다.

마곡사는 천년을 지나온 절이니
 고승들 널리 중생을 제도했으리
 계곡 물소리 누대에서 잘 들리고
 암석의 빛깔 여러 봉우리에 기이하네
 복된 지역이라 재난도 이르지 못한다 했는데
 신령스런 사람 말이라 속임수가 아니라
 선문 안에 오래된 자취 전해오는데
 금탑은 고려로부터 내려 왔다네

麻谷千年寺 高僧普濟爲
 溪聲一樓得 石色數峯奇
 福地災難到 神人語不欺
 禪門傳古跡 金塔自高麗

〈頤陀草 十一冊 麻谷寺〉

공은 위와 같이 읊고, 이어 “마곡은 제 3의 복지라서 삼재가 이르지 못하는 곳(道說秘記云麻是第三福地 三災不到之處云)”이라는 도선의 말을 덧붙여 소개하였다. 삼재는 풍재(風災), 수재(水災), 화재(火災)이니, 뒷날의 피난지(避難之地)로 여겨지던 것도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이 공은 공주의 산천경계와 명승고적을 두루 주유하면서 음영하였거니와, 이 밖에도 『泛湖十首』와 『錦城十首』 등 연작시까지 남긴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공주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연작시는 다음에 소개하기로 한다)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7)

장길수

__봉황중학교 교장
__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__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I. 땅이름과 랜드마크(표지물)

서울 시내에 들어섰을 때 남산타워나 여의도 63빌딩은 서울 지역을 식별하는 목표물로서 다시 없이 좋은 상징물이다. 이와 같이 어떤 지역을 식별하는 목표물로서 적당한 사물(事物)을 랜드마크(landmark)라고 한다. 랜드마크는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상징물로서 표지물(標識物)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건 처음으로 찾아가는 사람이라도 표지물을 통하여 목표 지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랜드마크는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되는 특성이 있어 곳(땅) 이름으로 대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 발달이 미약했던 예전에는 관아 건물이나 군주둔지, 조선소나 사기점 같은 제조업체 등이 상징물로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그 자체가 땅이름처럼 쓰이다가 아예 땅이름으로 굳어진 경우도 많다. 서울의 동대문(→동대문

구), 서대문(→서대문구), 남대문(→남대문로), 해남의 우수영, 아산의 공세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II. 땅이름 속에 살아있는 옛 터

오랜 세월이 흐르며 상징물이었던 관청이 폐지되었거나 쇠잔하여 터만 남아 있거나 심지어 그 관청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도 땅이름 속에 그 상징물이 화석처럼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

역말, 창말 등이 대표적인데, 이는 역이 있던 마을, 창고가 있던 마을을 의미한다. 지금은 역도 창고도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화석처럼 남아있는 땅이름을 통하여 옛 터의 위치를 추정하고 향토의 옛 모습을 복원할 수도 있다. 몇 개의 예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청 및 기관과 땅이름

부여읍에 구아리(舊衙里)라는 동네가 있다. 부소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舊衙

리란 ‘옛날 관아가 있었던 마을’이란 뜻이다. 이 와 같이 옛날에 관청이 있던 곳이 땅이름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

▲현 및 읍이 있던 곳에 현내리(縣內里), 읍내리(邑內里 - 홍성군 결성면, 서산시 해미읍 등) 등이 있다. 전남 담양에는 향교리(鄉校里), 객사리(客舍里) 등이 있다.



담양군의 향교리, 객사리, 지침리

2. 군사기지와 땅이름

군사기지는 특별한 생활과 특이한 경관으로 랜드마크로 곧 잘 활용된다. 땅이름 대신 ‘부대앞’, ‘사단앞’ 등의 버스정류장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전의 군사기지가 땅이름으로 남아 옛 지역의 특색을 가늠해 보기도 한다.

▲병마철도사가 주둔했던 병영(兵營 - 울산) 병영면(전남 강진군)이 있으며, 수군철도사 주둔지인 수영(水營 - 부산의 수영구, 수영동), 수영리(화성시 봉담읍), 좌수영(여수), 우수영(해남), 통영 등이 대표적이다.



우수영터 - 전남 해남

3. 제조소와 땅이름

토요타자동차로 유명한 토요다(豊田)시는 원래 이름이 고로모(擧母)였다. 작은 고모로 지역에 1938년 토요타자동차 공장이 입주하면서 발전이 시작됐고 1950년 시로 승격된 후 도시이름을 아예 회사 이름인 토요타로 개명했다.

▲사기를 굽던 마을이 사기소(砂器所 - 당진 면천), 조선소가 있던 선소(船所 - 여수시), 사옹원(司饗院)의 분원이 있던 곳이라 분원리(分院里 - 경기 광주시 남종면)라 부르는가 하면, 한지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지침리(紙砧里 - 전남 담양군 담양읍)라 불리는 땅이름도 있다.



선소터 - 전남 여수

III. 공주의 옛 터인 땅이름(1)

공주는 백제의 수도 이래 1,400여 년간 충청지방의 중심지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해온 곳이다. 따라서 공주의 땅이름 속에는 영욕의 편린들이 그 흔적으로 남아 있다. 땅이름을 통하여 희미한 역사의 발자취를 다소나마 복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1. 옛 관아와 땅이름

행정의 중심지였던 공주는 관청이 많았고 그 관청들이 랜드마크(표시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땅이름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1) 고상아리(古上衙里)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공주목의 핵심 지역은 남부면이었다. 남부면에 속하는 마을로 고상아리, 반죽리, 봉황산리, 허문리, 교촌리, 주미리, 아리포리, 한산소리, 박산소리, 송산소리, 웅진리, 옥거리 등이 있었다.

그 중 고상아리(古上衙里)라는 마을이 관청과 관련 있는 땅이름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고상아리(古上衙里)’라는 땅이름은 ‘옛날에 상급 관청이 있었던 마을’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감영은 현재의 반죽동 사대부고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지도서

에 의하면 사대부고 자리에 위치하기 전에 공산성에서 제민천변으로 다시 공산성으로 감영이 이동했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상아리는 지금의 봉황동 지역이다. 제민천변, 봉황초등학교 부근에 감영이 있었으므로 고상아리라는 땅이름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땅이름으로 추정한다면 공주의 중심지는 봉황동쪽에서 제민천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옥거리(獄巨里)

옥거리는 1914년 이전에 남부면에 속했던 마을로 지금의 시의회 동쪽, 제민천 가까이에 있었다. 아래 사진은 공산성을 배경으로 한 공주의 감옥 사진이다. 감옥이 둥근 원 모양으로 되어 있어 원옥이라 불린다. 원옥의 동쪽으로 제민천이 흐르고 주변은 대부분 논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옥거리는 ‘감옥이 있는 거리’라는 뜻이다.



공주의 원옥.
출처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3) 면소터

1914년 군면이 통폐합되기 전 공주군은 26개의 면이 있었다. 통폐합되면서 공주군 지역은 12개의 읍면으로 재편되었다. 이때 일부 지역에 면사무소의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옛 면소재지를 면소터라 한다.

조선총독부 충청남도 고시에 의하면 진두면과 익구곡면이 통합되면서 계룡면이 되었는데 처음 소재지는 월암리이며, 그 후 경천리로 옮겼다가 다시 월암리로 이동했다. 1914년 통폐합으로 면의 명칭 및 소재지 이동 상황을 아래 표에 정리했다.

그 후 면소재지의 이동 상황을 살펴보면 사곡면(계실리 → 호계리), 의당면(월곡리 → 청룡리), 이인면(목동리 → 이인리), 신평면(동원리 → 산정리) 등을 들 수 있다.



목동면면소터(오른쪽 기와집, 뒷산은 구절산)
2006.11.25



옛 의당면사무소 터(2007. 5. 24)

이인면은 목동리에서, 신평면은 신하리에서 면이름이 변경되었다. 그 외에 신평면은 유구면으로 또 다시 유구읍으로 변경되었다.

면 통폐합에 따른 통합 면의 명칭 및 소재지 이동 상황(1914년)

통합전 면명칭	소재지	통합후 면명칭	통합후 처음소재지	신소재지	이동연월일 고시연월일	관련자료
장척면	대교리	장기면	대교리	도계리	1914.11. 2	조선총독부 충청남도고시 61호
삼기면	?					
진두면	월암리	계룡면	월암리	경천리	1914.11.26	조선총독부 충청남도고시 66호
익구곡면	하대리					
의량면	?	의당면	윤정리	월곡리	1914.12. 3	조선총독부 충청남도고시 68호
요당면	윤정리					
반탄면	송학리	탄전면	송학리	삼각리	1915. 6.22	조선총독부 충청남도고시 29호
곡화천면	북룡리					
우정면	우정리	우성면	?	동대리	?	조선총독부 충청남도고시 호
성두면	보룡리					

|향토사료

공주의 학교 정담情談 (4)



이 일 주

- 공주대학교 교수
-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 공주고, 사범대학 졸업
- 동국대 대학원 졸업
- 저서 "현대교육의 원리"

공립공주보통학교 : 공주중동초등학교의 전신

공립공주보통학교는 을사조약이 체결된(1905년) 이듬해인 1906년(광무10) 8월 27일 대한제국 칙령 제44호로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었는데, 이에 따라 9월 1일 자로 그 때까지 운영되고 있던 공주사립소학교를 폐지하고 설립한 학교이다.

형식적으로는 당시 공주에 있던 사립소학교(현 초등학교)를 같은 학교급인 공립보통학교로 변경, 설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족성 자각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주사립소학교를 을사조약의 체결에 따라 일제가 자신들의 식민지교육형태로 변모시킨 것이다.

공립공주보통학교의 설립배경이 이와 같음에 따라 종전의 공주사립소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모두 자퇴해 버렸다. 그렇게 되자 결국에는 관찰사가 직접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녔으며 당시의 충청남도 참여관(參與官)의 저택을 임시교사로 사용하도록 내놓기도 하였지만 곧바로 보통학교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설립된 지 거의 두 달 만인 1906년 10월 17일에서야 비로소 개교하게 되었다.

공립공주보통학교의 초대교장으로는 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폐지한 공주사립소학교를 설립하였던 심기섭 교

* 이 글은 2002년 공주시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주시지 하권(下卷), pp. 167~255(제5편 제3장 교육)에 게재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장이 맡았다. 이와 같이 당시에 심기섭 교장이 초대교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은 일제의 식민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이었던 것 같다.

한편 공립공주보통학교는 1910년 치욕스러운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후 1911년 11월 1일 공주공립보통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그 후에 ‘공주본정공립심상소학교’(1938), ‘공주본정공립국민학교’(1941), ‘공주제1공립국민학교’(1946), ‘공주중동공립국민학교’(1949), ‘공주중동국민학교’(1949)를 거쳐 1996. 3. 1부터 현재의 ‘공주중동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명설(明設)학교: 공주영명중·고등학교의 최초 전신(前身)

명설학교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개화기에 기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공주에 처음 설립된 선교계 사립중등학교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근대 중등사학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교육사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선교사 스크랜튼이 여러 차례 공주를 방문한 이후 1901년 의료선교사였던 맥길(W.B. McGill)이 개척선교사로 파송되어 와서 공주군 남부면 하리동(下梨洞, 현 공주시 중학동) 언덕에 초가집 두채를 구입하였다. 그 후 맥길이 미국에 들어갔다가 개인사정으로 올 수 없게 되자 샤프(R.A. Sharp)가 1904년 공주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는데 샤프는 3년 먼저 한국에 와서 이화학당(1886년 개설)의 교사로 있던 해먼드(A. Hammond)와 결혼하고 배재학당의 교사로 있다가 부부가 함께 공주로 오게 된 것이다. 엘리스 샤프(Alice Shap, 한국 이름으로는 사에리시)는 1905년 가을부터 자기 집에서 여학생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학교의 명칭을 ‘명설학교(明設學校)’라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명설학교가 순조롭게 출범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 당시까지도 여성교육은 금기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잘 먹고 입히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미국으로 몰래 데려 간다”는 썩덕공론이 나돌면서 제 발로 걸어와 입학하는 학생이 있을 리 없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사에리시(史愛利施) 여사의 열성적인 노력 끝에 명설학교는 처음으로 2명의 여학생이 입학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진영신(陳永信)과 박초희(朴楚姬)였다(영명중·고등학

교, 영명 90년사, 1997, pp.85~86).

명설학교를 창설한 사애리시 여사는 남편인 샤프(Sharp) 목사가 논산 은진 지방에 갔다가 발진티푸스(이질)에 걸려 1906년 3월 15일 별세하자 일시 미국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자 명설학교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난 샤프(Sharp) 목사의 후임으로 윌리엄스(Frank Earl Cranton Williams, 우리말 이름은 우리암 : 禹利岩)가 공주로 파송되어 왔다. 우리암이 공주로 온 직후인 1906년 10월 15일 '명설학교'를 '중흥학교(重興學校)'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공주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학교를 개교함으로써 오늘의 영명중·고등학교를 있게 하였다.

영명학교

우리암 교장은 '영명'이라는 이름을 'Eternal Brightness'라고 하여 '영원한 광명'이라고 뜻을 풀이하였다. 영명의 '영(永)'은 한자 뜻으로 '오래되고 긴 것'을 의미하지만 영명학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희구하는 '영생(永生)'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명(明)'은 한자 뜻으로 '밝음'과 '분별함(辨)'과 '총명함(聰)'을 의미하지만 영명남학당에서는 '창세기'의 빛 즉 광명(光明)을 뜻하는 한편 공주 지방을 문명(文明)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영명학교를 설립하고 희망과 소망에 부푼 우리암교장은 즉각 학생모집에 나섰다. 사애리시 여사가 명설학교를 세운 당시 여학생을 입학시키기 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나은 편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공주지역은 아들을 낳으면 철이 나기 전 부터 무섭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향교에 보내야만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수업료를 받지 않고 지필(紙筆)과 책은 물론 용돈까지 주었지만 유학(儒學)의 뿌리가 깊었던 공주에서 개화교육을 시키려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 영명학교의 최초 입학생은 7명에 불과하였다.

한일합병 이후 1927년부터 종전의 영명학교에 입학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인문계학교의 명칭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일제가 교명변경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끝에 1932년에 이 두 학교를 '영명실수(實修)학교'로 통합·개편하고 한 학교 속에 남자부와 여자부를 병치함으로써 남녀공학의 실업계사립중등학교로 전환되었다.

당시 일제는 실용주의라는 이유를 내세워 한국인들이 재학하던 기존 인문계학교를 실업학교로 전환시킨다고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민족의 지적수준을 향상시키는 인문교육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들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어 식민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커지면 그것이 곧 독립정신으로 이어지고, 독립정신이 확산되면 일제에 대한 항거능력이 증강되는 것을 우려하는 한편, 당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생산기능을 한국인들에게 길러줌으로써 결국 한국의 농수산생산물을 수탈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어쨌든 영명실수학교에서는 철저한 실습위주의 실기교육에 치중하여 학생들에게 자립 생산기술을 습득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 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맹퇴치, 독립운동 등의 민족 계몽운동을 일요일까지 전개하였다.

한편, 일제가 강요하던 신사참배를 선교사들이 거부하는 등 일제의 지시에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영명실수학생들과 학교에는 점차로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어 갔고 결국 1940년 12월 우리암 교장이 강제 출국당한 것에 이어 1941년 12월 10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를 당하고 말게 되었는데, 폐교된 영명실수학교는 해방이 된 후에서야 1949년 12월 1일 공주영명상업중학교로 복교(復校)하였다. 그 후에 1951년 인문계학교로 개편하면서 '공주영명중학교'와 '공주영명고등학교'로 개편하였다.

이 학교와 관련해서 최근에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발견되었다. 1921년에 지어졌던 학교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어 아쉽게도 철거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초석이라고 부르는 우석(隅石)에서 타임캡슐인 한 개의 나무상자가 나왔다. 이 속에서 초대 우리암교장이 직접 작성한 문서와 '사립영명학교상황일람', '졸업생명부' 등 소중한 자료들이 나와서 초기 영명학교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¹⁾

민족항일기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

1910년 8월 29일 일제강점기에 의해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기게 됨에 따라 이때부터 해방되는 1945년까지 35년간 우리나라는 고난의 민족항일기를 맞게 된다.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함으로써 초등교육기관

인 보통학교에서부터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학제가 마련되었다.

이때의 학제에 의하면 보통학교는 4년을 수업연한으로 하되, 지방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고(교육령 제9조), 입학연령은 8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이며 입학자격은 12세 이상으로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였다.

이때의 교육제도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통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일본인화 하려는 보통교육과 기능습득을 위한 실업교육에 치중하였으며, 민족교육에 힘쓰고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계 학교들을 탄압하였고 한·일본인간의 차별교육을 시행하였다.

민족항일기 동안 공주지역에 설치된 한국인 학교는 모두 40개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공주공립보통학교’에 이어 ‘이인공립보통학교’(1917), ‘반포공립보통학교’(1921), ‘호계공립보통학교’(1921), ‘정안공립보통학교’(1922. 3), ‘의당공립보통학교’(1922. 8), ‘우성공립보통학교’(1924) 순으로 설립되었다.

요즈음에는 학생수가 늘어나면 새 학교를 짓고 학생수가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폐교하지만, 일제들은 일차적으로 서당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기관이 있거나 민족계 학교가 있는 지역을 먼저 지목하여 그들 학교를 강제로 폐지시키고 그 자리나 또는 인근 지역에 일제식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극히 일부만 들어보면, 이인공립보통학교는 1913. 5. 1 민족계 학교로 설립된 ‘이인사립삼흥학교’를 강제 폐교하고 설립된 것이며, 의당공립보통학교는 요당서원(蓼塘書院)을 폐교시키고 그 자리(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음)와 요당서원에 배향되었던 절제 충익공 김종서 장군의 생가(生家) 유허지(遺墟地) 사이에 일제가 세운 학교였다.

또한 이인사립삼흥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유구지역에는 삼흥학교보다 1~2년 전에 같은 형태의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구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한 사료(史料)를 찾을 수 없어 여기에서는 자세히 소개할 수가 없다.

한편 1910. 7에 ‘도립공주농림학교’(1920년 예산으로 이전)가 ‘예산농업전문학교’, ‘예산농업전문대학’로 승격되었다가 1992년 3월에 공주대학교와 통합하였고,

1) 초기 영명학교에 관련한 내용은 이일주, ‘공주 근대교육의 효시’를 게재한 공주문화 2006. 11, 12월호 및 2007. 1, 2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1912년 9월에는 충남 최초의 유치원인 '공주유치원'이 설립되었으며, 1922년 4월 22일 현재의 공주중학교와 공주고등학교의 전신인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가 충청 지역의 한국인 인문계고등학교로 처음 설립('청주고등보통학교'는 1924. 4. 19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간단하게나마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의 설립 당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공주 인근에는 몇몇 중등교육기관이 있었기는 하다. 즉, 1918년 대전에 설치한 일제 관립대전중학교(5년제, 현 대전고등학교)와 대전공립실과고등여학교(1921년에 대전 공립고등여학교로 승격, 현 대전여자중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이들 학교는 모두 일제의 관립으로 인가된 일본인 자녀를 위한 학교였을 뿐이다. 따라서 1920년대 초까지 충청지방에서는 당시 사회의 중민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한국인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남의 각 지역에서는 서로 먼저 한국인이 재학할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유치 운동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1921년 9월 30일 충청도의 유지급 한국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통함을 해결하기 위해 모여서 '충남고등보통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총독부에 진정서를 내는 한편 지방민들의 여론을 결속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학교유치 활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 당시 공주를 비롯하여 도내 주요 지역인 천안, 조치원, 홍성 등지의 지역민들은 충남고등보통학교를 서로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고 맹렬히 활동하였다. 공주 군민들은 충남고등보통학교 설립 기성회를 별도로 조직하여 영향력 인사들을 추진위원으로 영입하고, 지방민들의 열의와 여론을 모아 설립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때의 추진위원 중에는 공주가 고향으로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에서 수학한 후 1917년에 잠시 영명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당시 공주의 유망한 사회단체로서 공주청년조직과 전국조직이었던 신간회(新幹會)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구국운동을 펼친 후 해방 후에는 충청남도 내무국장(1945년)을 거쳐 제3대 충청남도지사를 역임하였던 서덕순(徐德淳, 1969년 5월 31일 사망)을 들 수 있다.

한편 이 때 홍성지역에서는 주위의 당진, 서산, 광천, 대천, 예산 등지의 지역민들과 합세하여 육영회를 조직하고 홍성군민 가가호호에서 곡식을 모으고 유지들로부터는 회사금을 모아 홍성고등보통학교 설립기금을 적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

으나 도청은 말할 것도 없고 법원, 형무소(현 교도소)등 모든 행정의 중심지인 공주에 고등보통학교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자 당시의 홍성군수가 인책 사직을 하였다 는 후문까지 남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통 끝에 충남도민 모두가 열망하던 한국인을 위한 인문계 중등교육 기관이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라는 명칭으로 1922년 4월 22일 처음으로 창립되었고, 충남도청의 응접실을 빌려 학교 개설사무소를 차렸다.

당시의 모든 도민의 관심 속에 4월 25일부터 입학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는 설립인가가 난지 4일 뒤였기 때문에 사용할 건물이 적당하지 않아 공주공립보통학교(현 공주중동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시험을 치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4월 29일 합격자 발표를 마친 후 다음날인 30일 충청남도의 식당(현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 앞, 1982년 도시계획으로 철거됨)을 빌려서 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내빈과 학부모의 지대한 관심속에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 시간 이 없었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임시휴교를 하고 1922년 5월 11일부터 공주공립보통학교 교실을 빌려 수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충청남도청에서 입학식을 하고 공주공립보통학교에 가교실을 설치하여 처음 수업을 시작하던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는 1923년에 학교부지를 당시의 공주심상소학교(일본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현재의 공주고등학교 자리에 있었음)로 정하였다. 그렇게 되자 공주심상소학교는 당시 헌병대 연병장으로 사용하였던 현재의 봉황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종전의 공주심상소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1924년 여름에 본관과 강당이 완공되었다.

또한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는 학교 부지를 현재의 공주고등학교 자리(당시는 공주 심상소학교)로 옮긴 1923년 4월 9일 교명이 공주고등보통학교로 변경되면서 이 때부터 약칭으로 '공주고보'라 불리었는데 이 약칭은 지금도 공주지역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칭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 이유는 당시의 공주고보는 공주나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명문교로서의 학교 명예가 드높았고 이와 같은 명성은 지금 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곡면 호계리



충효사 공주 유림, 제향장면

계유정난

충절의 맥이 서린 곳

- 유구천변의 유구한 마을
- 호랑이가 인도한 강당골
- 작은 도회지, 범재
- 심승지지는 평화로운 웃음으로 남고

계유정난
충절의 맥이 서린 곳

작은 도회지, 범재

호계2리는 요즈음 패더글라이더를 즐기는 두루봉에서 내려온 북호산이 감싸고 있는 곳으로 면소재지이다. 원래 100여 년 전만해도 초가 두어 채 있던 곳이 32번 국도가 지나면서 교통이 좋은 곳이 됐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사곡면사무소가 1917년에 계실리에서 호계리로 옮겨지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의 역사가 깊지 않아 큰 이야기거리가 없다고 노인네들은 손사래를 친다. 범재·남계(남두머리)·황골 세 마을로 이루어진 호계2리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나름의 도회지이다. 예전

〈지난호에 이어서〉

에는 면사무소만 기와집이고 나머지는 다 초가였는데 현재 초가집은 이야기속에서만 존재한다. 면사무소, 우체국, 치안센터, 농협 그리고 다방과 식당, 마트 등이 있다. 청와대 빼고 구색은 다 갖춘 셈이다. 점방이 수퍼로 변하던니 이제는 마트라고 간판을 붙였다. 시대의 변화에 바로바로 발맞춘 것이다.

각성밭이가 살고 있는 범재가 중심마을로서 면소재지에 있는데 이름대로 호랑이와 관련된 바가 있다. 사곡면사무소 뒷산이 호랑이가 엮드린 형상인 북호산이다. 호랑이가 호계2리를 감싸고 엮드려 있는 듯한데 머리는 바로 면사무소 뒤편이다. 호계1리 쪽에서 바라보면 그 형상이 또렷하다. 동편에 있



황골 전경

화암정



는 화월리는 개가 었드린 형국이니 범이 개를 먹기위해 준비자세를 취하고 있는 곳이 범재란다. 또한 송씨 할머니를 호랑이가 불을 밝히며 등에 태우고 출발한 곳이라고 해서 범재라고 일컫는다.

원래 범재에 2일과 7일에 여는 5일장이 있었으나 20여 년 전부터 자동차 문화로 인해 없어졌다. 이 장시를 범재장이라 불렀는데 해방되고 6·25전에 생겼다. 처음에 활성화가 안 되어 면에서 씨름대회를 열기도 하는 등 노력을 한끝에 공주에서 공주장, 유구장, 사곡장 다음으로 번창하여 소전까지 있는

큰 장이었다. 옛 장터는 손님다방과 영신상회 사이 골목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호계1리에 잘사는 사람이 몇 집 살았던 데 비하여 범재는 원래 형편이 어려웠다. 지금은 주로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

유구천의 남쪽 기슭에 시원한 정자가 하나 있는데 화암정(花巖亭)이 그것이다. 면사무소에서 길을 따라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노인휴식공원이라는 작은 쫓말이 잡아끈다. 계단을 오르면 꽃바위 즉, 화암이 있고 그 위에 세운 정자가 화암정이 바로 아래 유구천이 시원



정분 · 정자산 충효 정려 전경

스레 흐르고 낮게 막은 보가 있다. 북쪽으로 일직선상에는 만수동 고인돌자리가 보인다. 메기바위는 꽃바위 아래 유구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메기가 많이 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보이는 곳이 전부 정겨운 풍광으로 가득하니 풍류를 즐기기 위해 1935년에 사곡면 해월리 지역인사들이 발의하여 세우고 당시 마을 사람 정이희(鄭以喜)가 쓴 현판을 걸었다 한다.

십승지지는 평화로운 웃음으로 남고

마을 촌로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제일 연장자인 신상섭씨(85세)의 범재에 정착하게 된 내력은 흥미를

끈다. 원래 인천에서 살았는데 15세에 호계리 북동쪽에 붙어있는 계실리에 정착했다가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한 뒤 36세에 범재에 정착하여 50여 년을 살고 있다.

그가 사곡면에 온 때는 1936년경으로 당시 정감록의 예언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이를 신봉하였다. 피난지로 으뜸인 곳이 십승지지(十勝之地)인데 사곡면이 그 중의 하나여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다행히 토착민들과 갈등은 없었으나 전재산을 다 날리고 떠난 사람도 많았다한다. 주로 고당2리, 마곡사근처, 계실리 등에 모여 들었다.

신씨는 부모를 따라 인천에서 아산 선장까지는 배를 타고 왔다. 당시 배는

정분 신도비



나무로 만든 풍선(風船)이었으며 나락 100가마니 정도 실을 수 있는 크기의 것이었다. 아산에서 계실리까지는 목탄 버스를 타고 왔다. 목탄버스라는 것이 언덕은 잘 오르지 못하여 언덕을 만나면 손님들이 내려서 밀고 언덕에 오르면 다시 손님이 타는 것이었다. 버스는 하루에 2번을 다녔다한다.

그런데 신씨가 타고 온 풍선은 이틀이 걸렸으며 바람을 잘 만나면 하루만에도 당도한다고 말하였다. 당시 선장은 별다른 부두시설이 없이 깃골형태로서 주변에 주막 같은 것만 있었다. 선장이라는 곳은 고려시대에 대몽항쟁

시 천안민들이 입보하여 항전하던 곳으로 비정된 바 있다. 고려정부는 인천의 북서쪽에 위치한 강화도에 있었으며 선장은 바로 뱃길로 연결되는 곳이다. 전통 풍선을 타고 온 신씨의 증언은 고려시대이래 뱃길과 소요시간, 선장의 항만 역할 등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증언이라 하겠다. 또렷한 기억력을 가진 신씨는 인천 짚물이 사곡 민물맛에 빠져 일생의 편안함을 갖고 사는 듯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평화롭다. 십승지지를 찾아 온 결과이다.

유규천변의 호계리는 인근 사곡면 마을과 마찬가지로 십승지지로 알려진 때문인지 6.25 때는 많은 피란민이 몰려들었던 곳이다. 이 때문에 전란후에도 가구수가 늘어 한동안 '범재장'이라는 장이 열리기도 하였다. 장날은 2일과 7일이었는데 20여 년 전에 없어졌다.

호계리의 인물로 박인묵, 정본희, 문성규 등을 들 수 있다. 박인묵(1880-1937)은 1920년 경상도 김해에서 이주하여와 만수동 동네를 만들고 호계초등학교 건립시 학교부지를 희사하였다. 고당리 출신의 정본희는 1978년 임야 8천 여평을 희사하여 사곡중학교 건립에 공헌하였다. 유룡리 출신의 문성규는 한의사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면청사 건립에도 거액을 희사하였다고 한다. <끝>



清白吏 노극청 (?~1197) 盧克淸

나라를 至極히 사랑했던 내 고장의 先賢

선생은 고려 명종(高麗明宗) 때 사람으로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청백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明宗 15年(1185) 선생이 벼슬이 산원동정(散員同正)이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도 어찌나 청백하였던지 집이 말할 수 없이 가난하였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작은 집이나마 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집은 잘 팔리지 아니하였다. 선생은 공청에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늘 집을 비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선생의 처자(妻子)만 있을 때 집을 팔게 되었는데 선생의 집을 산 사람은 다음아닌 현덕수(玄德秀)였다.

현덕수는 역시 性品이 강직하고 체구가 건장하였으며 담력도 대단한 將軍이었다.

명종 4년(1174)에 평양에서 조위총(趙位寵)이 반란을 일으켜 절령 이복이 모두 반군에 호응하였을 때 수차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여 향리(鄕里)에 돌아와 있던 현덕수는 아버지와 같은 주장에게 가서 「옛날 거란군 소손녕이 우리나라에 쳐들어 왔을 때에 모든 성이 함락되었으나 오직

우리 연주성(延州城)만은 굳게 지키어 그 전공이 왕사(王史)에 실려 있소. 지금 조위총이 그릇된 마음을 품고 왕명(王命)을 거역하니 천지에 용납지 못할 것이오. 충의(忠義)를 가진 자 어찌 그를 좇을 수 있겠소」하며 성 안에 있는 장수들과 술경을 바라보며 망배하며 만세를 연창하고 사대문을 굳게 닫고 성을 고수(固守)하였다.

그리하여 조위총의 진중(陳中)에 소요가 일어나더니 마침내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났다. 그와 반대로 현덕수는 부서(部署)를 정제(整齊)하여 조위총의 반군을 격파하고 조위총에게 투항한 여러성을 탄탈하여 북방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하여 그 공(功)으로 벼슬이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이르렀다.

집이 팔린뒤 선생이 집에 돌아와보니 집값이 백금 12근(斤)을 받은 것을 알았다. 선생은 깜짝놀라며 「어찌 그리도 집값을 많이 받았느냐. 원래 집을 살 때에 9근을 주었으니 그동안 산건만 하여도 득(得)인데 그것도 모르고 12근이나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냐?」하고 노발대발하다가 집을 산 사람이



노씨삼의사 전경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소재

한덕수라는 말을 듣고는 집값으로 받은 12근에서 자기가 살 때 주었던 9근을 뺀 3근을 가지고 현덕수를 찾아가서 「내가 처음 이 집을 살 때에 9근을 주었었고, 그 후로 몇 년 간을 살았으며 또한 그 사이에 집을 개수하거나 확장한 일도 전혀 없는데 12근을 집값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오 그러므로 더 받은 백금 3근을 가져왔으니 받으시오」 하고 백금 3근을 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덕수 또한 의리(義理) 男兒요 청백한 사람이었다. 「당신은 옳은 행위를 지키려고 해도 청백하게 나오는데 나만 그러지 못하게 하여서는 되겠는가?」 하고 굳이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선생이 화를 내면서

「나는 평생을 두고 옳지 않은 일은 하여본 일이 없소. 어찌 옳지 않은 천한 백금을 얻게 하여 귀한 내 양심을 더럽히려 하는가? 그대가 만일 내 말을 듣고도 이것을 받지 아니하려면 내가 판 집을 도로 물려주기 바라오」 하였다. 그리하여 현덕수는 부득이 그 백금 3근을 받기는 하였으나 「나의 청백함이 노극청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서는 말이 되느냐」 하고 선생이 돌려준 백금 3근을 가지고 고심하던 끝에 중생을 구제하는데 요긴하게 써달라고 절에 사주하고 말았다. 당

시 인심이 매우 험악한 시대이므로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찬탄하여 마지 아니하며 「지금처럼 각박한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말이나」 하였다 한다.

그 후 선생은 벼슬이 은자광록대부 상서시랑 평장사(銀紫光錄大夫 尙書侍郎 平章事)를 거쳐 사재경사소경(司宰寺少卿)에 이르렀다. 선생은 평생에利를 버리고義를 숭상한 위대한義理人이다. 또한 임금을 섬기는 충절이 지극하여 功으로 만경군에 봉하여졌고 그로부터 선생이 만경 노씨의 종시조가 되었다 선생의 부인은 두산군 부인 만경 두씨로 아버지는 금자광록대부 이부상서 평장사 경승이다. 선생은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으며 이름은 상귀로 중산대부도감판관을 지냈다. 1973년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조상들의 위업을 기리고 사모하기 위하여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의 노씨삼의사 사당 좌측 맨 위쪽 좌편으로부터 선생을 비롯한 5대인 선생의 아들 상귀, 孫子 인, 증손자 증복, 고손자근의 묘소를 축조하고 비를 건립하였으며 매년 음력 10월 초정일에 제향 오늘날 훈탁한 사회에 선생과 같은 청백한 삶은 생활의 지표로써 귀감이 아닐수 없다.

한결 여유로워진 공주시청 민원인 주차장



공주시가 이번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한 주차면은 기존 주차면 보다 29면이 늘어난 총 83면(장애인주차장 6면 포함)에 달한다.

공주시청내 민원인 주차장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공주시는 지난 8월 25일, 시청사 주요 주차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란 표시와 함께 주차면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주차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상당수에 달해 각종 업무 해결 차 찾은 민원인들의 주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 공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공주시가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된 필지가 대상이며,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이다. 열람 및 접수장소는 시청 지적과와 읍·면·동사무소이며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대상 토지는 2,614필지로 열람내용은 m^2 당 가격이며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10월 26일까지 통보해 주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를 비롯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되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도 활용하게 되고 기타 각종 부담금과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에도 사용된다.



공주우성 상서리에 '인공습지' 조성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에 금강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규모 인공습지가 조성된다. 공주시 우성면 농지의 비료, 농약 등 농업배수를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조성, 금강 수계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태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액 국비로 조성되는 상서리 인공습지는 총 28억여원을 투입, 1만 411㎡의 시설규모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줄개구리밥과 애기부들, 연꽃, 미나리, 갈대 등 수생식물과 함께 징검다리, 목책, 안내판, 정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강수계의 경우 비점오염이 수질오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BOD 오염부하량의 22%에 이르고 있어 금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3월 '금강수계 비점오염원관리시설 시범설치사업' 대행역무계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한 바 있다.

'금강수계 비점오염원관리시설 시범설치사업'은 오는 2009년까지 총사업비 119억원을 투입해 공주 우성, 충남 서천, 전북 김제 등 금강수계 7곳에 인공습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민포시문공리서상평양주공

'비점오염원'이란 양식장·야적장·농경지배수·도시노면배수 등과 같이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없이는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정부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시범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공주 탄천산단 100만㎡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기업들의 이전 등을 위한 100만여㎡ 규모의 일반산업 단지가 공주 탄천지역에 조성된다.

탄천 일반지방산단은 공장용지 55만9094㎡(56%), 공원 및 녹지공간 20만4150㎡(20.5%), 도로 등 공공시설공간 18만7583㎡(18.75%), 주차장 등 지원시설 4만7593㎡(4.8%)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1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게 돼 연간 1조원의 경제효과 및 5500여명의 고용효과, 28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생길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특히 현재 용지 분양 중인 우성전문농공단지와 보물농공단지를 비롯한 신흥·유구 지역에 제2지방산업단지가, 이인면 신영리 일원에 이인지방산업단지가, 의당면 가산리 일원에 영상정보문화산업단지가, 의당면과 정안면에 각각 1개의 산업단지 등 5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분양키로 해 공주시가 교육·문화·산업의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 지명 변천 역사(略史) 책자발간

공주시는 옛지명과 현재지명에 대한 고찰이 없어 상호 연계가 되질 않고 '지적공부', '호적', '족보' 등에 기록된 옛지명에 대한 문의를 접할 때 민원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민원봉사실 김량섭 계장은 공직생활 중 틈틈이 자료를 수집·보존·정리하여 공주시민의 대한 민원 및 후배 공무원들 위하여 2007. 8. 6 '공주시 지명 변천 역사'를 발간하였다. '공주시 지명 변천 역사'는 공주시청 각실, 과 읍·면·동사무소 및 공주문화원에서 찾아볼수 있다.



'공주시 지명 변천 역사'는 공주시 지명의 과거와 현재까지 지명변천 유래, 동(洞)지역 지명 변천사, 관내 11개 읍·면 변천사를 담고 있으며 옛 지명은 알고 있으나 현재 어느 지역인지 알수 없는 주민들에게 요긴

‘2단계 국가균형 발전종합대책’ 실효성 확보하라

행정도시 · 10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178개 옮겨



정진석 의원

정 의원은 “사람과 돈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믿는다”면서 “따라서 세금감면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총체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 발전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감면과 고용보조금 지원, 산업용지 공급, 그리고 대기업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행정도시와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어 중앙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178개를 지방으로 옮기는 1단계 계획에 이은 조치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인 셈이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온 정진석 의원(국민중심당)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그러나 “지방에선 이번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법인세 감면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엔 긍정적이지만 세제 혜택 폭이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수도권 역차별문제, 조세형평성 논란,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에 대한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이제 7개월 남은 정부가 과연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정안천변 순환 산책로에 조롱박 터널 조성

시골 정취가 물씬 풍기는 조롱박 터널을 거닐면서 산책을 즐겨 보세요



공주시가 시민들에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정안천변의 유휴지에 순환 산책로를 새롭게 개설하고 조롱박 터널을 조성했다. 공주시보건소 뒤편에 있는 정안천변의 제방과 하천을 오가는 2km에 이르는 순환 산책로에 설치한 조롱박터널은 총 3개소로 1개소당 30m 규모이다.

이 조롱박터널에는 새하얀 빛깔의 조롱박을 비롯 연노랑의 단호박, 푸른색의 수세미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주렁주렁 달려있어 오가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특히, 주변 800m의 제방 길에는 수만 본의 코스모스가 산들산들 거리고, 2만 본의 해바라기가 가지런히 하늘을 향하고 있어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는 듯하다.

지난 달 중순 완공해 시민들에 개방한 순환 산책로에는 가로등까지 설치되어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은 물론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도 즐겨 찾고 있다. 공주시 산림과 전병득 국토미화담당은 “조롱박 터널이 설치된 정안천변 순환 산책로에는 하천 양쪽을 잇는 구름다리도 매실·대나무 등도 들어서 있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지원 전국 '우수 법원' 선정 영예

대전지법 공주지원(지원장 정영훈)은 7월 30일 발표된 심사 결과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함께 우수법원으로 선정됐다. 평가에 따르면 공주지원은 민사사건의 접수 대비 처리율이 상당히 높고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장기미제사건이 전혀 없는 등 사건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사건 당사자의 조기대면속도 및 사건처리 속도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사재판에서 구술변론을 구현하기 위해 사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고, 구술변론을 소액사건까지로 확대하는 등 구술주의 정착을 위한 강한의지와 함께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폐소생술, 모바일 영상서비스 제공

공주소방서(서장 신해철)는 심장 정지 후 3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소생 가능성이 75% 이상 높은 점을 심분 활용하고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급대원 도착 전에 주변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CPR(심폐소생술) 동영상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방법은 소방방재청, 전국소방안전본부, 소방서 홈페이지의 팝업창에 모바일 '심폐소생술 도우미 영상 서비스'를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핸드폰에 전송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간이 흐른 뒤의 응급처치는 소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하므로 환자발생 초기에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주민들이 모바일 영상서비스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공주 경로당활성화사업 큰 호응 “경로당에 오니 살 맛 나네”



지역 어르신들은 가까운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 하므로써 치매, 우울증 등 노인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생활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지회장 윤달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 사업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문화와 복지의 사각지대로 단순히 음주, 화투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경로당을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돕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이를 위해 공주시지회는 2007년 2월부터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경로당프로그램 전담 관리사를 채용하여 관내 405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실태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에는 이들 경로당 중 11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노래교실, 건강체조, 요가, 국선도, 실버댄스, 레크레이션 등을 진행하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석장리 박물관

생각하고 느끼는 박물관 수업



공주석장리박물관은 8월7일부터 9일까지 공주 및 인근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나의 먼 조상은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박물관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박물관 수업은 석장리박물관의 네가지 테마(자연, 인류, 생활, 문화)중 인류전시실을 탐험하고 지도교사와 학생간 질의 응답을 하는 수업으로, 아이들의 생각이나 관점을 끌어내고 다듬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연구동에서는 프랑스에서 실제품을 복제한 인류뼈를 이용, 인류머리뼈를 맞춰보고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면을 직접 만들고 써 보는 시간도 가졌다.

석장리박물관 최명진 학예사는 "참가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열중하는 모습이 진지했다"며 "생각하고 느끼는 박물관 수업을 방학을 이용해 처음 실시했는데 모집인원보다 신청인들이 많아 다 수용을 못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공주석장리박물관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각하고 느끼는 박물관 수업을 매년 방학을 이용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 공주금강전국풋살대회 성황리에 개최

2007. 공주금강전국풋살대회가 8월 25일과 26일, 이틀동안 백제의 고도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공주시는, 문화관광의 도시 공주를 널리 알리고 풋살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7. 공주금강전국풋살대회를 금강둔치공원에서 실시하였다.

공주시와 공주시체육회 등이 주최하는 이번 금강전국풋살 대회에는 6개부 174개 팀이 참여해 금강둔치공원 잔디밭에서 열띤 경기를 펼쳐졌으며, 유치부에서 15팀을 비롯 초등저학년부 24팀, 초등고학년부 24팀, 중등부 15팀, 고등부 48팀, 그리고 20대부에서 48개팀이 참가하였다.

풋살경기 모습

웅진도서관, 독후 감상화 그리기대회 개최

“독서의 감동에 그림 날개를 달아보자”

공주시 웅진도서관이 독서의 계절을 맞아 독후 감상화 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 웅진도서관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곰나루관광지 야외무대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후 감상화 그리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관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부로 나뉘어 개최한다. 저학년 부는 “전래동화”를, 고학년 부는 “위인전”을 사전에 읽어온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감상화를 그리게 된다.

책 읽는 즐거움과 독서습관을 익히고 창의력과 표현력을 길러 줄 이번 독후 감상화 그리기대회의 참가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웅진도서관(☎ 041-856-0678)에서 받는다. 한편, 웅진도서관은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웅진도서관 1층 로비에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다.

제7회 허수아비축제

“허수아비를 만들며 멋진 추억을 간직해 보세요”

공주시 정안면 대산~내문리 8km 구간

“햇살이 가득한 농촌 들녘에서 향수를 달래주는 허수아비를 만들며 추억을 간직해 보세요”

공주시와 정안면이 시골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농촌 들녘에서 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7회 허수아비축제를 마련했다.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개월 동안 개최되는 허수아비 축제는 천년고찰인 마곡사 가는 길(정안면 대산~내문리) 8.0km구간에서 열리고 있다. 꼬불꼬불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농촌들녘 논두렁과 논 초입에 설치되는 허수아비는 헌옷이나 철거된 플래카드, 모자, 폐각목 등을 활용, 제작하게 된다.

재료일체는 해당 마을에서 준비해 주고 있어 도시민은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찾아 해학과 익살이 넘치는 허수아비를 제작,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설치된 허수아비 앞에서 자유롭게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어 도시민들에게 멋진 추억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부터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허수아비축제는 금년이 일곱 번째로, 9월말에는 설치된 허수아비를 심사해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가질 예정이다.



허수아비 축제가 열리는 마곡사 가는 길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공주 밤의 본산지로, 일밤과 표고버섯, 토마토 등 무공해 농산물을 현지에서 손쉽게 구

대일공업(주), 공주대에 산학협력 장학금 전달



공주대학교 대일공업(주) 문필해 대표으로부터 산학협력장학금 1200만원 받았다. 산학협력장학금은 대일공업 주식회사에서 공주대 학생들이 자동차 시트부품 조립 및 검사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중 성실한 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 대일공업(주)는 지난 2005년부터 공주대생 33명이 체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2006년에는 47명이 체험 학습에 참여하여 성실한 학생에게 근로장학금 1억236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안면 감자할머니 ‘사랑의 감자’ 전달

공주시 정안면 이정구(67세, 일명 감자 할머니)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을 베풀어 이웃을 따뜻하게 해 주고 있다. 감자할머니는 지난 2000년부터 본인의 땅 약 400평에 봄에는 감자를 가을에는 고구마를 수확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훈훈한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 올해도 감자 10kg들이 90상자(시가 1,350천원)을 수확해 공주시 정안면과 천안 문성동에 전달했다. 전달 받은 감자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무의탁 노인,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할머니께서는 “올해는 감자가 덜 수확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가을에 고구마를 잘 재배하여 많은 어려운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특집 공개방송

국립공주박물관, 대전 MBC 공동 마야, 리쌍, 프리스타일 등 인기가수 초청

국립공주박물관은 박물관 야간개장 운영 활성화 및 문화향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 MBC와 공동으로 8월 11일 토요일 오후 8시에 ‘별이 빛나는 밤에 특집 공개방송’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박물관에서 현대의 대중문화가 어울리는 무대를 마련하여 지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한여름의 더위에 지친 지역민들에게 피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초대가수로는 폭발적 가창력의 로커 마야, 요즘 한창 발레리노로 사랑을 받고 있는 힙합 듀오 리쌍, 힙합을 기초로 펑키·댄스 등 다채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 프리스타일, 수많은 아티스트의 앨범에 프로듀서, 보컬로 참여한 신인 버벌진트, 추억의 명곡인 가을사랑으로 유명한 신계행이 화려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공주는 영화도시,

신상옥 청년영화제 성공적 개최

충남 공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공주 천마 신상옥 청년영화제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월 12일 7시 30분 공주 금강둔치공원에서 있었던 개막식에는 우천의 악조건 속에서도 이준원 공주시장, 이완구 충남도지사, 영화인, 시민과 관광객 등 1만여 명이 운집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중소도시 개최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짜임새 있는 행사준비로 공주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대거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장나라를 비롯 티아이피(비보이), 장사익, 자니리, 패티김, 인순이, 조영남 등 인기가수가 출연, 멋진 노래와 춤을 선사해 남녀노소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전야제 행사로 10일과 11일 밤 금강둔치공원에서 연속 방영된 고(故) 신상옥 감독의 “빨간 마후라”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봉준호 감독의 인기영화 “괴물” 등의 상영은 성공적 개최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상옥 감독의 미망인 최은희 씨와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 영화배우 신영균 등의 출연 등도 연화인과 관객을 한층 가까이 만드는 계기가 됐다.

1회 공주 천마 신상옥 청년영화제 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에는 ‘불을 지피라’를 출품한 이종필(남, 27, 한국예술종합학교)씨가 차지해 대상과 함께 상금 2천만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공주시장 상에는 ‘길’을 출품한 윤태식(남, 28, 성균관대학교)씨가, 공주시회의의장 상에는 ‘뼈칼’을 출품한 김민석(남, 29, 충남대학교 졸업)씨가 차지해 수상과 함께 상금 1천만원씩을 각각 수여받았다.

제1회 공주 천마 신상옥 청년영화제에는 총 298편이 출품되어 38편이 본선에 올랐으며 이중 18개 부문 19편이 수상했다.

최우수 연출상인 강우석 상에는 ‘너나 잘 하세요’의 이승규(남, 27, 서일대학)씨가, 우수 연출상인 강제규 상에는 ‘화려하지 않은 고백’의 전성빈(남, 26, 대진대학교)가 차지해 수상과 상금 700만원과 6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 남자 연기상(안성기 상)에는 영화 ‘헬프미’의 김태환씨가, 우수 남자 연기상(박중훈 상)에는 ‘쫄다멜로’의 정대훈씨가 차지해 수상과 함께 상금 600만원씩을 각각 수여 받았다. 또, 최우수 여자 연기상(강수연 상)에는 ‘쌍둥이들’의 오지은씨가, 우수 여자 연기상(김혜리 상)에는 ‘기억 지편의 장소’에 출연한 황윤선씨가 차지해 수상과 상금 600만원, 50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YTN 스타상(전용주 상)에는 ‘비틀즈는 속삭였다’의 이채린씨와 ‘인형계단’의 서정민씨가, 애니메이션상(김청기 상)에는 “THE Wall”의 최성훈씨

등이, 촬영상(정일성 상)에는 '불을 지퍼라'의 김현석씨가, 남자연기상(감우성 상)에는 '낮선 오후'의 이용규씨가, 여자연기상(장나라 상)에는 '레노바레'의 김해은이 차지했다. 이밖에 수상작품으로는 각본상(유동훈 상)에 '내 가슴속엔 락앤롤'을 연출한 최영은씨가, 조명상(김성준 상)에는 '캐치-22'의 이 현 씨가, 기획상(최정윤 상)에는 '개망초 꽃화환'의 전도한씨가, 편집상(김민준 상)에는 '귀지의 진동'의 이 세은씨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날 입상한 18개 부문 19명의 수상자에게는 인턴과정을 걸쳐 영화계에 입문할 수 있는 특전제공과 함께 대학 특별 전형시 가선포인트 등을 부여하고 우수작은 공중파 방송의 단편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처음 개최된 행사임에도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으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로 대회 개최의 이미지를 크게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술의향기



2007 공주알밤축제 행사

“알밤을 주우며 가을을 만끽해 보세요”

밤의 고장 공주를 찾아 토실토실한 알밤을 주고 가을을 만끽해 보세요”

전국 밤 생산량의 12.4%와 충남 밤 생산량의 38.0%를 차지하는 밤의 고장인 공주 지역의 일부 밤재배 농가들이 도시민과 함께하는 알밤줍기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정안·계룡 등 일부지역 22개 밤재배 농가들이 마련한 알밤줍기 체험행사는 오는 10월부터 1개월간 도시민을 대상으로 밤줍기 체험 제공과 저렴한 가격에 밤을 판매하는 행사다. 도시민들은 가족·연인·동료 등과 함께 밤 농장을 찾아 알밤줍기를 직접 체험하고 주워 온 알밤을 일정가격(1kg당 2,500~3,000원)에 구입해 갈 수 있다. 또, 일부 밤 농가에서는 일정 금액의 입장료(어린이 5,000원, 어른 1만원)만 내면, 손수 주워 온 밤을 2~3kg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알밤줍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밤재배 농가들이 1일 체험인원을 300~500명에서 최고 2천명까지 잡아, 직장 등의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알밤줍기 체험농가는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접속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농가 또는 시청 산림과(☎041-840-2818)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일 시 : 10월 14일 (일)

– 일정표

시 간	행사명	장 소	행 사 내 용
10:30~11:00	개막식	연문광장	알밤왕 시상
09:00~21:00	알밤직거래장터 및 지역 특산물 판매	금강둔치공원	생산자단체에서 운영 -기간 : 10.11~10.15
10:00~11:00	밤송이멀리던지기	“	선착순 참여
10:00~21:00	알밤전시 및 품평회	“	품종별 전시 -기간 : 10.11~10.15
11:00~13:00	밤줍기 시합	“	선착순 참여
11:00~18:00	알밤줍기 체험	“	선착순 참여
11:00~20:00	밤음식 전시 및 시식회	“	전문요리사 초빙
11:00~21:00	밤음식점 운영	“	전문식당에서 자체 운영 -기간 : 10.11~10.15
14:00~16:00	밤 던져 넣기	“	선착순 참여
16:00~18:00	알밤깎기 대회	“	선착순 차머
18:00	폐 회		





연극공연, 놀이패 풍장 등 산골문화축제

2007년 입석산골문화축제 열려

공주시 입석산골문화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한명덕)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연극인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2007년 입석산골문화축제'를 개최하였다.

유구夜 놀자!!'라는 이름으로 폐교된 유구입석초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2007년 입석산골문화축제'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연극인과 마을주민이 도·시민을 상대로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이번 축제에서는 극단 '젊은무대'와 극단 '나비'의 연극 공연 및 놀이패 풍장과 연정국악원에서 준비한 국악 공연,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마임,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되었으며,

유구 주민들의 실버댄스 및 유구 산골 가요제, 유구지역에서 생산되는 기능성 쌀과 보리쌀, 표고버섯, 신수박, 복숭아 등의 농산물도 전시 판매할 계획으로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가족단위로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가족단위로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었다.



제4회 공주 국제미술제 임림미술관서 ‘팡파르’

4회 공주 국제미술제가 10월 22일까지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소재 임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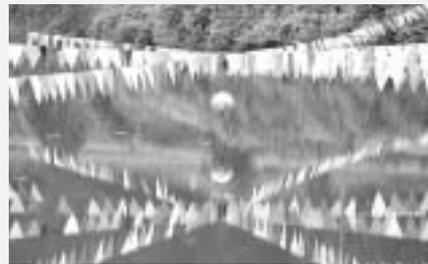
임림미술관과 대전MBC가 공동 주최하고 임림미술관이 주관하는 이번 국제미술제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5개국 85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미술작품을 선보인다.

5개국 85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주전시전은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임림미술관 본관전시실에서 “Doing Arts”란 주제로 열려 각국의 미술문화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물과 조각미술의 만남전’과 ‘백제의 옛보기전’인 부전시전에서는 주전시전 기간 동안 미술관 호수주변에서 관람객의 소원을 담은 그림 3천여 점을 철제 조형물에 부착하는 장면과 백제전통문화 및 생활상을 조형물로 제작하는 시연도 볼 수 있다.

특히, 본 행사기간 동안 수목화 그리기 미술체험과 ‘피아니스트’, ‘프리다 칼로’ 등의 예술영화 무료상영, 설치된 입체작품과 함께하는 사진찍기 등의 부대행사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미술제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53회 백제문화제가 10월 11일부터 5일간 공주와 부여지역에서 동시 개최돼 백제문화제를 구경하면서 국제적 감각의 미술전도 관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지역의 젊은 작가 24명이 참여하는 프리비유 초대전은 9월 한달간 임림미술관 특별 전시관에서 열려 150여 개의 평면 및 입체작품을 전시한다.



백제의 후예, '백제문화제' 홍보 나서다

공주·부여 자전거연합회 전국홍보투어 전개

공주시와 부여군 자전거연합회(정해상 회장)소속 회원 50명은 공주와 부여에서 동시 개최되는 제53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국을 일주하는 홍보투어를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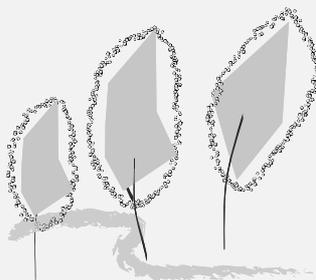
자전거홍보단은 8월 24일 공주시청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오전 9시 공주시청을 출발했다.

이들은 부여에서 10명이 합류, 대전,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직접 거리홍보에 나서게 된다.

민간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자전거홍보 투어단은 백제문화제 홍보깃발을 부착, 홍보물 배부 등을 펼친다.



출정식을 하는 백제의 후예들



민간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자전거홍보 투어단은 백제문화제 홍보깃발을 부착, 홍보물 배부 등을 펼친다.

예술의 향기

| 신간 서적 안내 |



만화로 재미있게 아는 백제이야기 학습만화 '백제야 놀자'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충남지역 문화콘텐츠 발굴·개발의 목적으로 '백제야 놀자' 학습만화를 출간하였다.

"백제야 놀자"는 어린이에게 친숙한 만화를 통해 백제의 인물과 역사를 배울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로 어린이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길러주고 대외적으로는 백제역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기대된다.



유병학 정년 기념 시집 '사랑하며 행복하며'

공주에서 42년간 교직생활을 하신 송계(松溪) 유병학(兪炳鶴) 교수님께서 2007년 8월 24일 오후 4시 공주교육대학 음악관에서 40여년의 교직생활 정년식과 함께 정년기념 시집을 출판하였다.

송계(松溪) 유병학(兪炳鶴)

- _충남 공주 출생
- _공주시대, 충남대, 세종대
- _고등학교사(1965~1980)
- _공주교육대학교수(1981~2007. 8. 24)
- _충남문인협회 공주문인협회 회원





공주문화원 향토작가 초대전

동천 이기하(東泉 李冀夏) 선생 서예전

공주문화원에서는 “향토작가초대전”의 일환으로 「동천 이기하(東泉 李冀夏)」선생의 서예전을 2007년 9월 3일 ~ 9월 9일 공주문화원 전시실에서 마련하였다.

동천 이기하(東泉 李冀夏) 선생은 공주 태생으로서 그간 행정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서예에 정진하여 서예가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21세기 문명의 최대 이기(利器)라고 불리는 컴퓨터의 등장으로 근자에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쓰는 일들이 적어져 심지어는 대학출신자들의 글씨가 초등학생의 글씨와 별바 다른것이 없다는 요즘 사회풍속의 아쉬움 속에 우리 선조로 써내려가는 멋스러운 모습을 떠올려 보며, 이번 서예전을 통해 우리지역의 활성화가 되길 기대한다.



동천 이기하 작품 '孝'



공주문화원 역사문화유적답사

공주문화원은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애호의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적답사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8월 25일 1차 공주시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유적 답사는 신청자 84명중 83명이 참여 높은 인지도로 오전 7시 출발하여 여주군과 음성군의 문화유적을 찾았다.

공주문화원에서는 8월 25일 일반인대상 문화유적답사를 시작으로 9~10월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유적답사를 준비중이다.



여주군에서는 한글 창제 우리역사상 위대한 성군이신 세종대왕릉을 찾아 참배후 측우기, 혼전의 등으로 둘러보며 세종대왕의 업적을 느꼈다. 또한 보물7점과 무형문화재등을 간직하며 남한강을 굽어보고 있는 시와 무학대사의 불심을 접할수 있었으며, 목야박물관을 찾아 보물3점을 비롯한 6000여점의 유물을 접하며 불교문화의 미술의 세계를 심취하였다.





배운 것을 꼼꼼히 적으며...

여주의 마지막코스인 '명성황후 생가'를 찾아 황후의 파란 만장했던 45년 일대기를 엿보며 조국의 대한 자부심과 애국의 의지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소요시간		내 용
07:30~10:00	2시간 30분	여주 도착
10:00~10:40	40분	명성황후 생가 및 기념관 관람
10:40~11:00	20분	세종대왕릉 이동
11:00~11:40	40분	세종대왕릉 관람
11:40~12:00	20분	신륵사 이동
12:00~13:00	60분	점심
13:00~14:00	60분	신륵사 관람
14:00~14:10	10분	목아박물관 이동
14:10~15:00	50분	목아박물관 관람
15:00~16:00	60분	음성 이동
16:00~17:00	60분	음성 큰바위얼굴 공원 관람
17:00~18:30	1시간30분	공주도착, 해산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향토지킴이와 꿈나무 어린이와의 만남

옛것을 계승하자는 향토문화지킴이 실버문화학교 어르신들이 8월 3일 공주 도령서당에서 어린이들과 화합의 만남이 이뤄워졌다. 실버문화학교는 문화관광부·국무총리복권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노년세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50개 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전송해 왔으며, 노년의 삶을 보람차고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우리고장 예능을 지닌 어르신분들과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어린이들에게 딸치기, 집터다지기, 가리계소리, 논매는소리 등 여러 가지 전통놀이를 체험 계승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세대간의 화합을 다짐하





조상의 슬기와 숨결을 느끼고 나서..

봉황중학교 2학년 3반 송경섭

나는 9월 8일 공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문화유적 탐방에 동행을 했다. 우리 반에서는 장희랑 종호랑 같이 갔다. 나는 유적탐방이라고 해서 '따분하고 재미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가보니 역사공부를 해서 좋고 우리의 문화재를 봐서 좋고 새로운것을 아는 기쁨은 더욱 즐거웠다. 그런 유적탐방을 누가 재미없다고 하겠는가? 그러면 즐거웠던 역사탐방 발자취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명성황후 생가에 갔었다. 명성황후는 고종황제의 황후로 개화기에 뛰어난 외교력으로 자주성을 지키면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한 우리나라 역사의 여성 개혁자이다. 하지만 '누가 일본을 원수라고 칭하지 않을까?'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을미사변으로 일본인에 의해 시해 당하였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던 명성황후가 출생하여 8세까지 살았던 집이었던 것을 알고 나니 더욱 더 핏줄에 힘이 오르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 집에 먼저 와서 제일먼저 느낀것이 '어렸을 때도 사대부 집안이었을 텐데 왜 집이 작은걸까?' 했는데 가이드께서 설명해주시기를 이 집은 살 목적으로 지은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무덤 관리용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매년 10월 8일에는 명성황후 시해를 추모하는 명성황후 추모제가 열려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명성황후 생가에 이어 우리가 간 곳은 세종대왕릉이었다. 우리 중에서는 세종대왕을 모르는 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종대왕 업적을 간단히 소개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측우기, 해시계 등 과학기구를 많이 발명하시고 그에 못지 않게 국방도 튼튼히 하셨던 우리나라의 위대한 왕이시다. 그러한 세종대왕께서 묻히신 곳을 갔다. 처음에는 원래 이 무덤이 여기에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가이드께서 말씀하시길 원래는 서울에서 10리 안에 왕의 무덤을 저야 이치가 맞지만, 본래 무덤 자리로 마땅하지 않고 불행한 일이 많아서 멀리 이여주까지 왔다고 하니 그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음 우리는 신륵사로 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집 한 채 있고 강물이 흐르나보다 했는데, 알고보니 남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곳이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나의 답답하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문화원소식



인도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아마도 불교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이다. 목아박물관은 그런 불교 용품과 유물을 간직하면서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를 한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그래서 그런지 목아박물관은 매년 기획전과 특별전을 통해 유물들을 공개하여 불교 문화와 미술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역할에 힘쓰고 있고, 특정 종교와

관계없이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내가 가장 인상깊었던 음성의 '큰바위 얼굴 조각공원'이었는데, 나는 처음 가보지만 웬지 와봤던 것처럼 낯이 익었다. 우리나라 위인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고, 매력적으로 웃고 있는 모습에 푹 빠져들었다. 이 공원에서는 세계 역사를 학교 교실이나 좁은 안방에서 글로만 공부하는 것을 벗어나 넓은 마음으로 돌 조각 인물상을 통하여 생동감 있고 살아 숨쉬는 세계 역사를 직접 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곳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조각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누드 조각품이었다. 하지만 그것들도 오늘은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만큼 만든 사람의 땀과 노력이 베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세상을 한번더 넓게 보고 내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어디 아무데 가서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가치있고, 우리 역사를 다시 보게 되는 좋은 탐방이라 생각한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석하고 싶고 내 주위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 마흔번째 정기공연 실버전통 예술단 “논두렁 밭두렁” 발표회

공주문화원이 주최하고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이 주관하는 마흔번째 정기공연이 한가위를 앞두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말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가 풍요로운 중추절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예인촌 마흔번째 정기공연을 9월 13일 7시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문화원이 지원육성하고 있는 실버문화학교 “논두렁 밭두렁”의 전통 문화 공연으로 2006년 창단되어 그동안 세종시 기공식을 비롯하여 우금티 예술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는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버예술단 동아리이다.

특히 우리조상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는 두레풍장, 공주소리, 동요와 함께 색소폰과 피아노 연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무대로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즐기수 있었던 이번 공연은 공주시민 및 문화애호가등 300여명의 만석을 채운 채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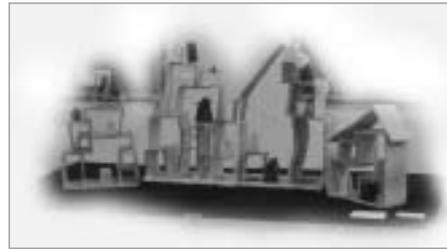


문화원소식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제23회 졸업작품전

9월 11일~9월 18일까지 공주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

제23회 공주교육대학 미술교육과 졸업작품전이 공주문화원 제1,2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예술의 혼 제민(濟民)의 길

2007 제6회 공주예술제

2007년 9월 15일~16일 양일간 공주 반죽동 제민천(우체국앞)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부에서 개최하는 제6회 공주예술제가 개최되었다.

15일 길놀이, 웅진전국사진공모전, 청소년 음악회 및 충남연정국악원 초청공연으로 개막전 행사가 펼쳐졌으며, 개막식은 우천관계로 인하여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공주원드앙상블 전기연주회, 국악협회 국악한마당, 문인협회의 시낭송으로 둘째날 행사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의 가장 특색있던 전시 및 체험코너가 제민천 특설전시장에서 전통공예교실, 시화전, 사진공모전, 작가협회 회원전, 충청남도 사진작가협회, 가족사진찍어주기, 탈그리기, 페이스 페인팅이 펼쳐졌다.

사진 있음 주세요

제12회 “효”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입상작

| 중등부 산문 차상 |

입모양으로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사곡중학교 1학년 1반 염슬아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은 현재 몇 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나오고 있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부모님께서도 내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고, 그 후 부모님과 연락이 끊겨, 청각장애인이신 할머니, 오빠, 그리고 나, 이렇게 3식구가 살고 있다. 할머니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오빠와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뭘! 어떡하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면 다 철들었을 이 나이에 철도 안 들고 틈만 나면 할머니께 성질을 내고, 투정 부리기만 한다. 어쩌면 청각장애인이신데, 수화조차 하시지 못하고, 글도 쓰실 줄 모르는 그런 불편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처음에 할머니를 보았을 때도 그랬다.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알아 듣지 못하였었다. 대화 또한 입모양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지금은 처음 보았을 때보단 덜할진 몰라도 불편함이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나는 한동안 이런 할머니가 창피해서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와 어딘가를 같이 가는 것 또한 좋아하지 않았다. 한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할머니와 공주 시내 쪽의 지하에 있는 마트에 갔을 때였다. 할머니께서 콩나물을 사시겠다고, 콩나물을 팔고 계시는 아주머니께 가서 말씀하셨다.

“콩나물 2000원어치만 주세요.”

물론, 청각장애이신 우리 할머니의 말씀이 정확한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의 말이 아닌 거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머니가 나에게 물어보셨다.

“얘야, 할머니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혹시 외국분이 시니?”

라고 말이다. 나는 그 때 너무 어이가 없고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죄송한데요, 저희 할머니 외국 분 아니시거든요? 잘 모르시면 그냥 뭐라 그러시는 건 가만 물어 보세요.” 라고.

그 때 나에게 조금 미안하셨는지, 2000원어치보다 조금 더 주신 것 같았다. 이 일이 있던 이 후로 나는 할머니와 어딘가를 간다는 것이 더욱 창피하게 느껴지고 그런 기회를 자꾸 피하게 되었다. 매일 속으로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잘하자.” 라고 수백 번 다짐을 하는데 자꾸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오빠와 내가 속을 많이 썩여서 또 이런 적도 있었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슬아야, 일어나봐 얼른!” 할머니께서 힘겨운 목소리로 나와 오빠를 깨우셨다.

“아, 왜 그래요, 자는데...” 나는 또 성질을 내며 일어나서 불을 켰다. 불을 켜고 보니 할머니께서 팔과 다리를 부들부들 떠시고 이까지 가시면 충혈된 눈으로 앉아 계셨다. 할머니께서도 떨림을 참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계신 거 같았다.

“염슬아, 뭐해! 얼른 붙잡아!”

오빠는 일어나자마자 심하게 떨리는 할머니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고, 난 너무 놀란 나머지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오빠가 급히 재촉하는 소리에 할머니의 팔과 다리를 오빠와 함께 붙잡았다. 그 때 한 40분 정도가 흘러서야 진정이 되셨다. 그 때 놀라서 할머니께 무척 잘해 드렸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성질을 냈다. 이런 일 외에도 할머니께서 골다공증에 걸리셔서 모든 집안일을 다 내가 했던 적도 있었다. 아직까지도 나 때문에 갖은 고생 다 하시고 있는 우리 할머니, 비록 대화는 입모양으로 힘들게 해야겠지만, “앞으로는 입모양으로 사랑을 전해 드릴게요.

제12회 “효”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입상작

| 초등부 은문 장원 |

산문 원고 한편 주세요



알림

「공주문화」지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
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
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
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의거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화지는 공주가 고향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어오니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성 명	연령	주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 주 문 화 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 :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www.culturegj.or.kr | 네이버검색:공주문화원